

## ■ 지식 기반 경제와 신고전학파 거시경제 이론

- (지식의 특징과 신고전학파 거시경제학) 경제 이론의 중심역할을 해 온 신고전학파 거시경제학이 상정하고 있는 일반균형이론이 설정하고 있는 가정은 지식의 특성과 배치되고 있음
  - **지식의 내생성**: 신고전파의 가정처럼 지식은 경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내부의 기술 혁신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 창출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임
  - **수확체증성**: 일반적으로 지식은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 수준이 높은 기업의 독점화 경향이 나타나 완전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
  - **외부성**: 지식 생산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되어, 효용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신고전파의 최적화 원리가 성립이 안됨
  - **불평등성**: 사람에 따라 보유한 지식은 다를 수밖에 없어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지식을 가진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함
- (결론) 지식의 내생성에 기초한 연구와 타학문과 연계한 연구가 필요함
  - 지식이 경제 내에서 어떻게 창출 · 전파되며, 어떻게 생산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시장 조직 및 기업 활동에 파급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노동시장, 금융시장과 같은 경제 각 분야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지식 기반 경제와 신고전학파 거시경제 이론

이 글은 로마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Giovanni Dosi 교수의 논문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theory to the understanding of a knowledge-based economy, 1996.를 소개한 것임. Dosi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지식의 특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이른바 주류 경제학의 방법론에 대해 비판하고 지식 기반 경제라는 현실 속에서 경제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다른 학문과 연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 문제 제기

- (지식 기반 경제에 관한 상반된 견해) 지식 기반 경제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의 역할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음
  - 첫째 견해는 경제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사회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러한 견해는 「一般均衡理論」<sup>1)</sup>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견해는 일반균형이론과 같은 이른바 主流 經濟學<sup>2)</sup>의 이론들은 지식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경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균형이론이 가지는 많은 비현실적인 가정<sup>3)</sup>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임

### □ 지식의 특징

- (내생적) 지식의 생산과 전파는 사회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생산된 지식은 사회의 조직 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며, 사회의 조직 형태는 다시 지식의 생산과 분배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지식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로 취급하는 신고전학파적 사고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임

---

1) 일반균형이론이란 모든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모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즉 시장을 균형에 도달하도록 하는 가격 체계가 존재함을 뜻함

2) 시장 경제를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신고전학파를 지칭하며, 이들은 한계생산성 원리에 따라 임금, 이자, 지대의 대가가 분배된다고 주장함

3) 일반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가정들이 필요함

- (수학 체증) 지식은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음
  - 지식의 생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사용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오히려 지식의 사용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생산 규모를 증가시킬 경우에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완전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
- (외부성)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음
  - 지식 생산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생산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되며, 이러한 외부성은 지식 생산자의 의욕을 상실시킴으로써 지식 생산이 부진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 경우 신고전학파의 주장처럼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사회적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됨
- (지식 보유의 불평등성) 같은 집단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갖고있는 지식이 다름
  - 누구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회내에서 지식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갖고 있음
  - 이러한 지식 보유의 불평등성은 지식의 전파 방법과 속도에 달려있음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지식 보유의 불평등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 거시경제학의 한계

- (극단적인 비현실) 과거 거시경제학의 비현실적인 내용이 최근 들어 개선되지 않고 더욱 극단적인 비현실로 흐르고 있음
  - 과거 거시경제학은 소비성향, 승수(multiplier), 가속도 원리, IS-LM 등과 같이 경제 주체들간의 관계에 대해 비교정학적 분석<sup>4)</sup>을 통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변수에 대한 자의적인 성질 부여와 미시적 기초의 부족, 체계적이지 못한 직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류 거시경제학은 이론과 현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등의 극단적인 비현실로 흐르고 있음.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다기간 최적화 문제<sup>5)</sup>임

---

4) 어떤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화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방법. 변화의 과정과 속도 등을 고려하지 않음

- (기존 경제학과 지식 기반 경제) 이론적 및 현실적인 이유에서 현재와 같이 비 현실적인 분석을 하는 거시경제학은 바람직하지 못함
  - 이론적인 관점에서 지식을 노동과 자본과 마찬가지의 생산 요소로 취급하는 거시경제학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지식 기반 경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
  - 현실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은 국가의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거시경제학적 분석의 결과는 자유 방임적 정책적 처방을 내리게 할 위험이 큼

#### < 지식의 특성과 신고전학파 경제학 >

분류	지식의 특징	신고전학파 경제학
지식과 집단	· 지식은 집단의 고유한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지식은 주어진 것이며, 개인과 집단간에 차이가 없음
생산 기술	· 생산을 늘릴수록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은 생산량과 무관
외부성	· 지식의 생산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지식의 수혜자가 됨	· 이러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완전경쟁에 따른 최적화가 성립안됨
지식의 분포	· 사람에 따라 가진 지식이 다름	· 개인간 지식 보유의 차이는 없음

#### □ 결론

- 경제 이론이 지식 기반 경제의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보완점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지식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알려져 있으며 생산 기술도 기업간 차별이 없다는 기존 경제학의 관점 대신 지식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또한 기술 진보와 노동 시장, 정보 기술과 금융시장 등 분석해야 할 이슈가 많으며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향후 다가올 정보사회의 이해와 정책 입안의 수립에 경제학이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전민규 주임연구원 [mkjun@hri.co.kr](mailto:mkjun@hri.co.kr) ☎ 724-4015

---

5) 미래 상황의 경제적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을 최적화한다는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분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함